

# 광주·전남 아파트 청약 경쟁률 '뚝'

당첨가점 커트라인도 크게 하락  
잇단 규제에 공급물량 누적 원인  
단기차익 노린 가수요 차단  
광주 집값은 49주 연속 상승세

광주·전남지역의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커트라인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강화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청약에 나서는 가수요가 상당부분 차단됐고, 최근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지역 내 공급물량이 누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부동산114가 최근 3년(2019년~2021년) 간 청약접수를 받은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의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5월까지 광주지역의 당첨가점 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2019년 46점, 지난해 44점에 비해 약 10점이 하락한 것이다.

전매제한과 거주무기간 강화 등 주택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가수요가 차단돼 청약경쟁이 떨어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는 아파트 청약 당첨이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된 데다, 청약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2019년과 지난해 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미 청약에 나섰다 하는 것도 당첨가점 커트라인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광주지역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019년 52.9대 1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0.5대 1, 올해 17.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도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이 지난해 39점에서 올해 4점으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25.1대 1에서 올해 2.1대 1로 급격히 하락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광주·전남은 전매제한 등 조치가 이어 규제구역으로 포함돼 가수요가 빠졌고, 최근 공급이 누적된 게 당첨가점 하락과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며 "아파트 입지와 브랜드 등에 따라 경쟁률 차이가 컸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입지나 분양가, 브랜드 등에 따른 수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광주지역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0.2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광산구 0.16%, 남구 0.14%, 동구 0.09%, 서구 0.06% 순이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 첫째 주(6일) 이후 4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상승률은 2.54%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 상승률(0.08%)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 1~5월 누계 상승률을 보면 북구가 3.60%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이어 광산 3.43%, 남구 3.15%, 동구 1.99%, 서구 1.47%로 나타났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부터)이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 현대차·SK·포스코·효성 회장 뭉쳤다

### 수소기업협의체 9월 설립...수소경제 활성화 시동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효성그룹 등 4개 그룹이 9월 중 수소기업협의체 설립을 추진한다. 4개 그룹은 10일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경기도 화성의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만나 수소기업협의체 설립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 주도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CEO 협의체인 '한국판 수소위원회' 설립 추진에 뜻을 모았다. 수소기업협의체는 현대차, SK, 포스코 등 3개 그룹이 공동의장을 맡고 수소 관련 사업과 투자를 하는 기업의 추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7월까지 참여 기업을 확정하고 9월 최고경영자(CEO) 총회를 열어 출범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수소기업협의체는 CEO 협의체로 운영되면서 정기 총회와 포럼 개최 등 국내 기업의 수소 투자 촉진을 유도, 이를 통해 수소 사회 구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해당 그룹들은 그동안 수소 사회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했고, 2030년까지 연간 수소전기차 50만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70만기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SK그룹은 지난해 수소 사업 전담조직 '수소사업추진단'을 신설했고, 2023년 부생수소 3만톤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친환경 청정수소 25만톤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수소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2050년까지 그린 수소생산 500만톤, 수소 매출 3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효성그룹은 2023년까지 글로벌 기업 리더와 함께 울산 남구 용연 국가산업단지에서 1만3000t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건립, 전국 30여곳에 대형 액화수소 충전소를 세울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효성그룹은 수소기업협의체 설립 추진과 함께 앞으로 수소 관련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탈탄소 시대의 도래를 선도해 나간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전KDN

### 호남 중기 자금지원 20억원 추가 출연

한전KDN이 광주·전남·전북지역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2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전KDN이 추가 예정하는 20억원은 지역 중소기업과 K-뉴딜관련 품목 영위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쓰인다. 최근 40억원이 예정된 동반성장협력대출 자금은 전액 소진됐다. 이에 따라 한전KDN은 자금을 운용하는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추가 예치를 추진한다. 자금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광주·전남·전북에 있는 협력기업 가운데 K-뉴딜관련 기업과 창업기업·벤처인중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다. K-뉴딜 부문은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디지털뉴딜 115개 품목 관련 첨단제조·자동차·정보통신·센서측정 등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중소기업이면 된다. 뉴딜투자 공동기준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 및 11개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에서 만든 표준지침서를 말한다. 한전KDN 관계자는 "광주·전남·전북 중소기업 경영자금 유통성 확보로 지역 경제활성화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에 더해 신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섬유업 상생협력위원회 2차 회의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업본부가 10일 주최한 '영·섬유업 상생협력위원회 2차 정기 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0여명이 지역 물산업 육성과 홍수기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업본부 제공>

## 해양에너지, 5개사와 온실가스 감축 협약

광주·전남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주)해양에너지는 한국남동발전(주), 전남지역 중소기업 5개사와 온실가스 감축에 협업하기로 했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9일 한국남동발전 본사에서 전남 중소기업 5개사와 '중소기업 친환경 연료전환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앞서 1월 한국남동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협약 참여 기업은 세라코(주), 삼호콘크리트(주), ㈜삼원, (유)도로산업, 쏘솔에너지 등이다. 이들 기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연료인 병커씨유, 경유 등을 사용했다. 협약을 통해 해양에너지는 5개사에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공급실적 자료를 제공한다. 한국남동발전(주)은 5개사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과 배출권 발행을 돕는다. 이로써 발행된 배

출권은 모두 남동발전이 구매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약 3500t에 달하는 연간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또 연료전환 설비교체비용 일부를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배출권 확보로 예상되는 수익은 8400만원(용역비 별도) 가량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안정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하고 해양에너지는 도시가스 신규공급처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연료비용을 절감하고 배출권 판매, 저금리 대출혜택을 얻게 된다. 해양에너지 측은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가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삼성전자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신제품 출시

### 세척·건조·살균 기능 대폭 강화

삼성전자는 11일 세척에서 건조·살균까지 한국 식문화에 최적화된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신제품 <사진>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신제품은 '360도 제트샷'과 '열풍건조' 기능을 더해 세척 성능뿐만 아니라, 건조와 살균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360도 제트샷'은 뜨거운 물살을 집중적으로 쏘아주는 기능으로, 대형 식기가 많이 놓이는 하단 후면에 적용해 음식물이 놓여붙은 냄비, 프라이팬의 때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열풍건조'는 내부의 습한 공기를 흡입한 후 가열해 만든 뜨거운 바람으로 식기의 잔류 물방울까지 말끔하게 건조해 주는 기능이다. 이밖에 편의사양으로는 설거지 양이 적을 때 세척부터 건조까지 29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상단 급



속' 기능이 적용됐고, 제품 중단에 불베어링 물리를 적용해 식기로 인해 무거워진 바구니를 손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크기의 와인잔을 놓을 수 있는 '접이식 와인잔 랙'도 추가했다. 출고가는 제품 타입과 색상에 따라 144만원에서 184만원 사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투자하실 분! 모십니다

- ▶ 경기/수도권 지역
- ▶ 급매물/경매 입찰·낙찰 특수물건
- ▶ 투자금 - 3억 이상
- ▶ 수익금 - 월1부 법적보장
- ▶ 원금 - 법적보장(담보1순위 또는 충분한 담보제공)

문의. 010-3605-5000